

보도설명자료

(17. 9. 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석탄발전 취소땀 수천억 손해”

“LNG로 바꾸면 1조원 덜 들어”(17. 9. 1, 서울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남동발전 관계자는 “신규 석탄 발전소는 기존 발전소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이러한 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듯하다”고 지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☐ 신규 석탄 발전의 오염물질이 대폭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, 여전히 LNG 발전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은 많음

* 신규 석탄발전소는 영흥화력 3~6호기와 동일한 배출허용기준 적용

- ☐ 신규 석탄 발전의 오염물질은 신규 LNG 발전과 비교할 필요

<주요 발전소별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(PM 2.5) 배출량 비교>

구분	신규 석탄	기존 석탄	신규 LNG
	영흥 3~6	삼천포 3~6	안동 LNG 복합
대기오염물질(kg/MWh)	0.186	1.804 (영흥대비 9.7배)	0.058 (영흥대비 약 1/3)
미세먼지(PM 2.5)	0.044	0.384 (영흥대비 8.7배)	0.007 (영흥대비 약 1/6)

* 대기오염물질 = 먼지 + SOx(황산화물) + NOx(질소산화물)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최우석 과 장 (044-203-5240)
장지혜 사무관 (044-203-5246)